

출판콘텐츠 OSMU를 위해서는 복합화 전략 필요 출판·인쇄 편집 문장부호·교정기호 표준화 KS 제정

출판문화학회(회장 부길만)는 지난 2월 2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출판·인쇄문화 표준화 구축과 출판 콘텐츠·마케팅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제 16회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출판사 '꿈꾸는 아침' 홍현정 기획편집부장은 <출판 콘텐츠의 다목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문화콘텐츠의 다중유통방식인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의 성공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특히 문학출판을 중심으로 OSMU의 성공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었다. OSMU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원천 소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형 산업이며, 콘텐츠의 복합화 전략에 성공여부가 달렸다. 홍 부장은 "세계적인 미디어그룹들은 영화, 음반, 방송, 출판, 인터넷,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모든 영역에서 수직적, 수평적 통합으로 독점화를 추구하면서 OSMU 전략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포터 시리즈>와 <반지의 제왕>은 책이라는 전통적인 콘텐츠가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종이책 시장에서 외면 받던 인터넷소설, 로맨스·판타지 소설은 전자책의 활성화로 인해 전자책 시장에서 장르문학이 전체 판매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들이 드라마로 각색될 경우 높은 시청률까지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복합화전략으로서 출판콘텐츠는 작품성 있는 문학작품의 발굴이 필요하고, 인터넷



을 통한 장르문학의 소재 개발과 다양한 작가 발굴, 방송영상 매체를 통한 소재의 개발, 문화원형콘텐츠의 활용 등 전략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전영표 상록문화정보연구소장은 '출판·인쇄 편집 문장부호·교정기호 표준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납에 의존했던 조판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입력됨으로써 교정기호 이용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06년 12월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확정 고시한 '출판·인쇄 KS표준'을 설명했다.(본지 2007년 1월호 게재) 표준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다양한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편집기호가 나타나는 한편, 편집기호를 의미전달보다는 디자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편집기호 사용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있다. 상록문화정보연구소는 54종의 편집기호를 선정해 명칭, 적용범위 등을 검토해 일반편집기호안을 표준화는 성과를 거뒀다.

전 소장은 "최근 모바일에까지 편집문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편집기호표준은 의사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문화산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할 것"이라고 보충했다. **☞**